

무등산권 지자체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도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심사를 앞두고 광주·전남·담양·화순군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14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2일

유네스코 심사위원 오는 19일부터 현장 실사 광주시·전남도·담양군·화순군 공동협력 체계

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위한 유네스코 현장심사가 무등산권에서 진행된다. 재인증 현장심사에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인 베트남의 쩌뎨반(Tran Tan Van)과 이란의 키미야 사담 아자예비(Kimiya Sadat AJAYEBI)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해당 기간 광주·담양·화순에 머물며 무등산권역의 지질명소와 역사문화명소, 지역주민 협력사업 추진 현황 등을 살핀다. 현장심사는 19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개최하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20일 무등산 주상절리대·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설부지·지오빌리지 청포마을 방문, 21일 고인돌 유적지와 서우리 공룡화석지보호각 등 화순권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22일에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담양습지 등 담양권역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또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현장심사 위원과 4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4년간의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관리상황을 최종 심사한다. 평가위원들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 지침에 따라 지질교육과 관광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 주민과의 협력사업, 지질명소 보존 노력, 지질공원 관리구조 등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광주와 전남도·담양군·화순군은 환영 리셉션에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개 지자체간 강한 협력의지와 안정적인 지질공원 관리구조를 선보인다. 동시에 무등

산권 세계지질공원 공동협력 협의회를 구성,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지위 유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국내에서 제주·청송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개최되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재인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평가점수(그린카드)를 받아야 세계지질공원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다.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구축 노력 등의 내실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이끌어온 만큼 재인증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광주역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급물살’...부지 매각 잠정 합의 철도공단, 광주시 부지변경안 수용 매각 선회

철도부지 매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주역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역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부지변경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철도공단은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이후 광주역을 경유하는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기존 부지가 노선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지 매각에 반대 입장을 보여오다 이번에 매각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국철도공사 역시 토지가치 상승을 이유로 당초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달빛내륙철도 관련 문제가 해소되고, 철도공단에서 중흥동 일대 혁신지구 편입 부지 매각 입장을 통보 해옴에 따라 관련 내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철도공사는 앞서 지난 4월 경영전략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달빛내륙철도 경유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부지 매각과 관련해 부결 결정을 광주시에 통보한 바 있다. 광주역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는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그린·디지털·스타트업 중심 창업·혁신기업을 집적화해 광주역을 산업·문화·주거 등이 결합된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역 후면 1만4000㎡(4235평)에 총사업비 1688억 원을 앞으로 5년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I·친환경에너지·모빌리티, 5G-ICT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호남권 최대 창업타운을 조성한다는 게 궁극적 목표다. 시는 공모 당시 철도부지 매입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철도공사, 철도공단으로부터 부지 매각 가능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 공모에 선정됐다. 하지만 공모 선정 이후 광주역을 지나는 달빛내륙 철도 계획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의 입장이 180도 돌면서, 사업지연이 우려됐다. 이번 입장 선회는 조 의원이 국토부 업무보고와 결산심사에서 국토부 공모 사업인데도 산하기관들의 비협조로 국가혁신지구 내 그린 스타트업 타운(중소벤처기업부)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공모 사업까지 연거푸 지연될 우려를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철도공단은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철도공사는 경영전략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 해야 하고, 이사회 의결까지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이번 국경감사를 통해 확실히 광주역 철도부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전남도, 공예 장인의 고장 과시 대한민국공예품대전서 단체 우수·개인 우수 등 수상 휩쓸어



김육남 물길따라온여행



정기봉 청자물가풍경

고 그 우수성을 뽐냈다. 전남에선 특선 이상 수상작 25점을 출품했다. 그 결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개인부문에서는 문화재청장상 2점, 장려 5점, 특선 4점 등을 차지했다. 개인전 문화재청장상 수상작은 김육남 작가의 ‘물길 따라 온 여행’과 정기봉 작가의 ‘청자물가풍경’이다. ‘물길 따라 온 여행’은 물고기 문양의 아가사기한 옥 공예품으로 예술미와 실용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자물가풍경’은 청자 특유의 푸른빛으로 그 아름다움을 잘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 우수작은 각종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특전이 있다. ‘대한민국 공예명품’ 인증마크 사용 자격도 주어진다. 양국진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남 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공예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창의적 공예품 개발 및 공예산업 발전을 지원 하는 등 전남 우수 공예인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상 결과는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상작은 오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시한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전남도가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목포대학교와 협력해 환경부 공모사업인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유치했다. 사진은 센터 현장실사 모습. (사진=전남도 계몽)

전남도, 미세먼지 적극대응...‘남부권연구관리센터’ 유치 3년 간 27억9000만원 투입...조사·분석·저감 방법 연구 진행

전남도가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목포대학교와 협력해 환경부 공모사업인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유치했다. 센터가 관장하는 남부권은 광주광역시,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영암 등 7개 시·군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센터는 3년 간 총사업비 27억9000만원을 투입해 남부권역에 최적화된 미세먼지 조사·분석·저감 방법 연구를 진행한다. 국비는 매년 4억6500만원씩, 총 13억9500만원이 투입되며 나머지는 시·군비가 투입된다. 이번 공모는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소재 대학과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목포대학교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신청해 사업·연구 수행능력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센터는 앞으로 남부권 미세먼지를 조사·분석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법 연구와 교육 홍보활동을 맡는다. 특히 미세먼지 연구·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도민 건강피해 예방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관기관인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사업관리, 미세먼지 교육,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운영 등을 맡는다. 목포대학교는 미세먼지 관측, 원인분석 등 연구 부문을 주관하며, 전남도와 4개 시·군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한국인본진흥재단
Korea In-Huma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남씨를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141,111원	1.1배
4분위	125,531원	1,211,111원	1.7배
3분위	79,147원	1,211,111원	2.1배
2분위	48,103원	1,211,111원	2.7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1,211,111원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